

세상의 끝에서 여행을 떠난 아바

- 성골롬반 호스피스 -

의 사

▶ 일반 정보

- 성명 : 조 ○ ○
- 가족 : 부인, 1남 1녀
- 나이/성별 : 48세/M
- 종교 : 가톨릭
- 전신쇄약 및 통증 구강구조 괴사로 인한 섭식 장애

▶ 현 병력

- 1997년 6월 경구개암 진단, 상악 부분 절제술 (서울 아산병원)
- 항암치료 7회, 방사선치료 못함
- 2004년 폐와 뼈로 전이
- 호스피스 완화치료 연결

▶ 과거력

다른 질환 전혀 없었음

▶ 이학적 소견

- 상악동과 부비동의 괴사 및 안구 함몰

▶ 진단

- 경구개암
- 전이암

▶ 계획

1. 통증조절
2. 괴사부위 치료
3. 영양공급(호스피스 팀 접근)

간 호 사

▶ 대상자

- 성명 : 조 ○ ○
- 성별 : M/48세
- 가족관계 : 부인, 1남1녀, 노모(서울 거주)
- 진단명 : 경구개암
- 재원 기간 : 2008. 4. 20 ~ 2008. 12. 28
- 호스피스 등록 : 1999년 등록

▶ 개인력

- 성격 : 꼼꼼하고 책임감 강하며 대인관계 원만
- 가족관계 : 부인과 1남 1녀
- 직업 : 개인사업 하였으나 건강 문제로 사업을 포기하고 부인이 개인식당 운영 함.
- 종교 : 천주교(진단 후 냉담 했으나, 호스피스 간호를 받으며 다시 신앙생활 시작)
- 병식 : 있음
- 경제 상태 : 병원비 및 자녀 양육비 부담

▶ 환자 사정(1)

- 의식 : 명료
- 식이 : 유동식
- 피부 : 건조하며 창백, 발 부종
- 배변 : 주 2~3회 좌제 사용
- 배뇨 : 자연배뇨를 하나 기능저하로 유치 도뇨관 설치
- 일상생활 정도 : PPS 40%

▶ 환자 사정(2)

1. 통증

- 경구개 부위 괴사 및 궤, 뼈 전이로 인한 통증 호소
- 입소 당시 옥시콘틴 180#2 로 유지하였으나 통증이 심해져 옥시콘틴 480#2 와 듀로제식 패취 180ug로 유지함
- 통증 심할 시 p. r. n으로 IR codon으로 조절 함

2. 드레싱

- 입안 냄새 제거 : 수시로 oral care 및 가글액 사용
- 괴사 부위 : 후라질용액 과 식염수 사용, 눈 주위 테라마이신 안연고 사용
- 병실 냄새 심각

3. 호흡곤란

입소당시 O2 2L/min 사용하며 이후 3L/min로 증량하였으며 분비물이 코로 분비되어 답답함 호소

▶ 간호 진단

- #1 질병과 관련된 통증
- #2 괴사 조직의 분비물과 냄새
- #3 불안감과 외로움

#1 질병과 관련된 통증

S : “진통제를 먹어도 너무 아파요”
 “가슴이 답답하고 숨이 차요”
 O : VAS 10정도의 통증 호소

• 간호중재

- 괴사 부위 통증 호소시 냉찜질 제공
- 산소 포화도 검사 후 산소 연결
- 편안함을 느끼는 체위 유지
- 심한 통증이 시작되기 전 속효성 진통제 복용
- 항상 본인의 통증을 표현하도록 격려 함
- 병실이 답답하지 않도록 자주 환기를 시킴
- 심한 통증시 주치의와 상담하여 모르핀 투여 함

• 평가

- 지속적인 통증 감소
- 호흡 안정

#2 괴사 조직의 분비물과 냄새

S : “코로 분비물이 나와 숨쉬기가 답답해요”
 “저로 인해서 병실에 냄새가 너무 심해 어렵다면 좋아요”
 O : 코와 상처 부위에 분비물과 출혈이 심하고 복도까지 냄새가 너무 심하게 난다.

• 간호 중재

- 수회의 드레싱과 냄새 제거를 위한 탈취제 사용
- 1인실 사용과 공기 청정기 사용
- 아로마 요법 및 병실 환기

• 평가

- 아로마 요법을 이용한 심신 안정
- 자존감 격려
- 가족 면회시 쾌적한 환경 조성

#3 불안감과 외로움

S: “내가 죽으면 우리 가족들은 어떻게 하죠, 그리고 경제적인 면도 너무 걱정이 되요”

“죽음이 아직 나에게 멀리 있다고 믿고 싶고, 불안하기도 하지만 혼자 있는 시간들이 너무 외로워요”

O: 가족과 함께하지 못하는 시간 동안 혼자 병실을 지키는 모습이 외로워 보임

• 간호 중재

- 외로움이나 본인의 감정을 표현하도록 정신적으로 지지한다.
- 자원 봉사자와 따뜻한 만남을 가질 수 있도록 추천한다.
- 가족이 자주 면회 올 수 있도록 추천하며 부인과 아이들의 지속적인 사랑이 있음을 알려 준다.

- 심신을 이완시켜주는 음악을 제공 한다.
- 입소비, 진료비, 소모품비 등 경제적인 지원을 모색 한다.
- 수녀님의 기도와 격려로 임종을 자연스럽게 맞아들이도록 지지한다.

• 평가

- 후원금으로 모든 비용을 처리 함.
- 표정이 밝아지며 언제나 감사하다는 말을 전함.
- 자원 봉사자와의 만남을 기다림.
- 그림던 가족과의 만남에 있어서 관계형성이 원만함(변형된 모습에도 가족이 모두 자연스럽게 받아들임)
- 임종 순간에도 수녀님께 “감사합니다”라고 말하며 선종함.

원목자

요셉을 처음 만났을 때 오랜 치료와 병원비로 경제적인 부담을 느끼고 있는데다가 주거하는 임대 아파트 분양비를 내지 못하고 자신이 경제활동을 못할 뿐더러 아내가 경영하는 식당이 영세하고 자신의 병에 대한 분노와 신에 대한 원망으로 인하여 가톨릭신자이긴 하지만 성당도 가지 않고 성체를 모시지 않고 있었으며 치료를 포기하지 않고 병 호전에 대한 희망의 끈을 놓지 않고 있었다.

가정방문을 통하여 요셉과 가족들과의 친숙한 만남의 시간을 가지며 자신의 병에 대해 스스럼없이 대화하며 변해가는 모습에도 자연스러운 상처치료와 접근으로 친밀감을 주도록 기도하고 지지하며 본인이 가톨릭신자임에도 성체를 모시지 않는 것에 대해 죄책감을 느끼지 않도록 격려하고 냉담중인 신자에게도 하느님은 변함없는 사랑을 주심을 알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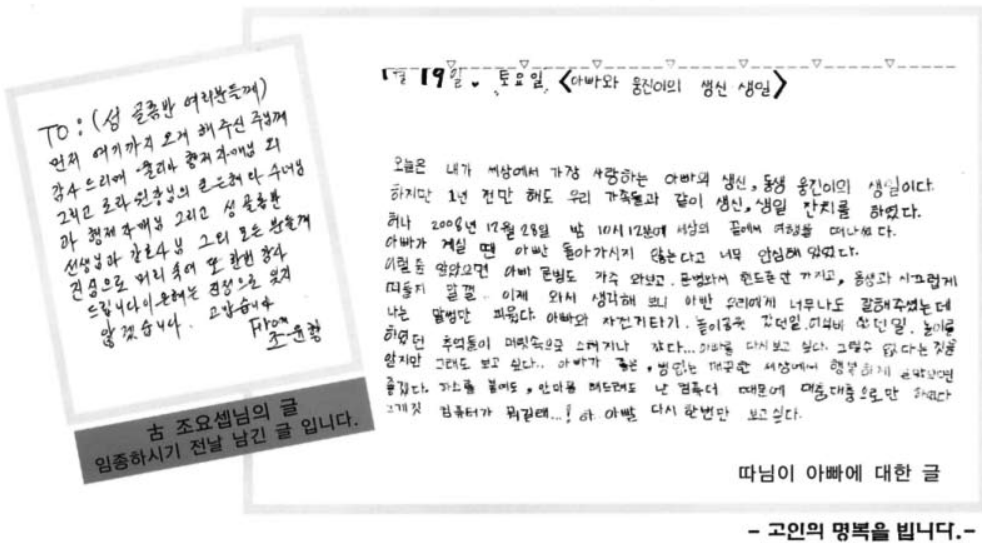
드렸다.

경제적인 어려움과 좁은 공간속에서 아이들과 한 방을 사용하는데 자신의 변해가는 모습과 일그러진 얼굴부위에서 나는 냄새로 아이들이 자신을 멀리 하지나 않을까, 그렇지 않아도 식당의 손님들도 없는데 손님들의 발길이 끊이지 않을까 염려하며 부담되는 병원비와 상처치료에 대한 자신감을 잃고 외로워하고 있었다. 입원을 고려했으나 당시 냄새가 심했던 요셉은 다른 입원 환자들 때문에 1인실을 사용해야만 하는 입장이었으나 병원비부담으로 입원을 생각할 수 없는 형편이었으므로 요셉을 요양원에 모시고 와서 요양원 입소비 및 약값, 주사비를 후원금으로 지원해주고 1인 병실을 제공하여 본인의 독립 공간을 마련하여 자존감을 잃지 않도록 도와 드리며, 병을 고치려는 한 가지 신념만을

가지고 있던 요셉이 요양원에 들어오면서 자신의 병을 받아들이며 마지막 단계라고 인식하도록 도와드렸다.

성가를 들으며 매일 함께 기도하고 자신만의 쾌적한 공간에서 가족을 만나면서 가족들과의 관계도 잘 형성되었으며 아이들이 자연스럽게 자신에게 다가와서 포옹하며 사랑을 줄 때 자신이 아직 살아

있음을 느낀다고 하였다. 삶의 애착에서 끈을 놓지 않던 요셉이 요양원에 오셔서 직원들의 애정어린 보살핌과 가족들의 변치 않는 관심과 사랑, 하느님에 대한 무한한 사랑을 느끼며 삶의 여행을 마감할 때에는 감사하는 마음을 가지고 마음을 잘 정리할 수 있었던 것을 보며 호스피스 의미의 새삼 마음에 새기며 보람을 느끼게 되었다.



1월 19일 토요일 (아빠와 웅진이의 생신 생일)
오늘은 내가 세상에서 가장 사랑하는 아빠의 생신, 동생 웅진이의 생일이다.
하지만 1년 전만 해도 우리 가족들과 같이 생신, 생일잔치를 하였다.
허나 2008년 12월 28일 밤 10시 12분에 세상의 끝에서 여행을 떠나셨다.
아빠가 계실 땐 아빠 돌아가시지 않는다고 너무 안심해 있었다.
이럴 줄 알았으면 아빠 문병도 자주 와보고, 문병 와서 핸드폰만 가지고 동생과 시끄럽게 떠들지 말걸.
이제 와서 생각해 보니 아빠 우리에게 너무나도 잘해주셨는데 나는 말생만 피웠다.
아빠와 자전거 타기, 놀이공원 갔던 일 어부바 했던 일, 놀이를 하였던 추억들이 머릿속으로 스쳐지나 갔다.
아빠를 다시 보고 싶다. 그럴 수 없다는 것을 알지만 그래도 보고 싶다.
아빠가 좋은, 병 없는 깨끗한 세상에서 행복하게 살았으면 좋겠다.
파스를 붙여도, 인마를 해드려도 난 컴퓨터 때문에 대충 대충으로만 하였다. 그까짓 컴퓨터가 뭐길래...!
아 아빠 다시 한번만 보고싶다.

자원봉사자

오랜 병고와 외로움을 견디며 하루하루 힘겨운 삶을 사시는 호스피스 대상자들에게 나의 작은 힘이나마 보태려고 햇살 좋은 복사골에 자리잡은 골룸반 집을 방문하는 자원봉사자 정연숙입니다.

그날도 방문해야 할 대상자의 이름과 현재의 상태에 대한 간단한 설명을 듣고 병실을 방문하는데 (조OO) 이분에 대해서는 월례회의에서 활동 보고로 들어오던 분이래 친근한 맘으로 203호 병실 문을 열었다.

이미 알고 있는 대로 악취가 심하였고 얼굴 한쪽은 거즈로 가려져 있었다.

구강암에 코까지 전이가 된 상태여서 얼굴 한쪽이 부어있었으며, 아직 젊은 나이로 오래도록 투병 생활을 하는 그의 얼굴은 쓸쓸하고 외로워 보였다.

안타까운 마음에 필요한 것이 없느냐고 물으면 괜찮다고 하면서 현재의 투병 생활을 잘 받아들이고 작은 일에도 고맙다고 표현 하였다.

이렇게 몇 차례 만나면서 병실문을 열고 들어가면 반가워하는 표정을 얼굴 가득 담으며 그날의 상태에 대해 이야기를 하는데 통증이 심할 때는 기도만 해 드리고, 편안해 보일 때는 가족한테 미안하다는 것과 딸아이에 대한 말을 자주하였다.

그날도 다른 날과 마찬가지로 방문을 하여 많이 아프지는 않았냐며 필요한 것이 없느냐고 물으니 머리를 깎고 싶다고 하였다. 왜 깎으려고 하느냐고 물으니 딸아이가 1주일 후에 온다고 하며 딸에게 깨끗한 모습을 보이고 싶다고 하여 딸이 오기 전에 머리를 손질하기로 약속을 하였다.

몸은 아프지만 마지막이 될지도 모르는 아빠의 모습을 예쁘게 보이고 싶어 하는 마음이 느껴져 마

음이 애잔함을 느꼈다.

우리 본당에 미용 봉사는 하는 자매에게 부탁하여 함께 와서 미용을 해주었다. 물론 누워 있는 상태에서 깎을 수밖에 없었다. 거울을 보여주며 어떠냐고 물으니 “저는 잘 생겨서 인물이 흰하게 돋보이네요!” 라며 아주 기뻐하며 마음에 들어 하였다. “따님 잘 만나고 좋은 시간 되세요” 했더니 고맙다고 하며 기대에 차 있어 보였다.

그 후 딸은 잘 만났는지, 상태는 좀 어떠하였는지 궁금한 마음으로 요양원을 다시 방문해 보니 딸이 다녀간 다음 선종하셨다는 말을 듣고 뭐라고 말할 수 없는 아픔과 고마움이 밀려왔다. 마지막으로 하고 싶은 일에 도움을 줄 수 있음이 감사하였고, 고통의 어려움 중에 있으면서도 긍정적인 생각으로 감사하는 마음을 잊지 않았던, 그의 얼굴은 찌그러져 있었어도 그 마음은 편안했으리라 생각되었다. 지금은 건강하고 멋진 모습으로 천국에서 행복하리라…….

